

국제상표출원제도, 국내 시행 1주년 맞았다

하나의 출원만으로 원하는 국가에 동시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국제상표출원제도가 지난달 10일로 국내 시행 1주년을 맞이했다. 국제상표출원제도는 해외상표출원 및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제정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등 총 62개국이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은, 직접 외국에 출원할 필요없이 하나의 출원서에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그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난 1년간 국제상표출원제도의 이용 현황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출원한 건수는 총 1백36건으로 평균 7.6개국을 지정(통상적인 해외상표출원 1천38건에 해당)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독일 순으로 국제출원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요 해외진출 대상 국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제외한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 61개국 중 거의 대부분인 57개국에 대하여 출원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다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을 지정한 국제출원자가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MIDAS, E-LAND' 상표가 북한을 지정하여 출원되었는데 북한 역시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이므로 제도상 출원이 가능하지만, 북한은 그동안 체제인

정 문제 등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 국민의 출원서 접수를 거부하여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우리 국민의 상표가 북한에서 등록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출원된 건수는 3월 중순까지 2천1백74건으로 독일, 스위스, 프랑스, 베네룩스, 이탈리아, 일본 순으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각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이 그 나라가 어떤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는 마드리드 의정서가 '03년 11월에야 시행됨으로써 아직 우리나라에 대한 출원건수가 많지는 않으나, 세계지식재산기구 통계에 의하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정하여 출원하는 비율이 미국 전체출원 평균 5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미국인의 출원이 조만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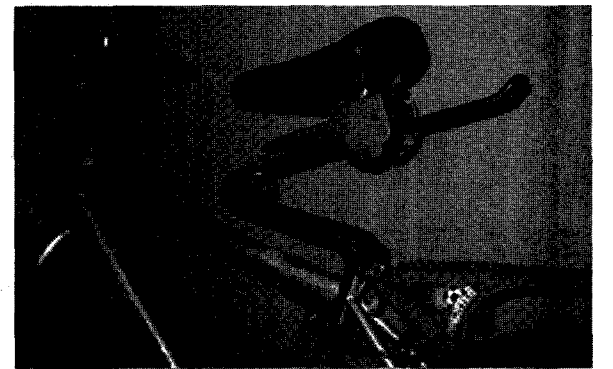
이처럼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대상국 중 하나인 미국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였고, 유럽공동체(EC) 또한 오는 9월에 가입할 예정이어서 마드리드 의정서가 명실공히 보편적인 국제상표출원제도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동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효율적인 해외상표관리전략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허청은 지속적으로 국제상표출원제도를 이용자 위주의 제도로 더욱 개선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보다 손쉽게 해외에서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32회 제네바 국제발명전 국내 발명가 전원 수상

우리나라 발명가들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2회 제네바 국제발명전'에서 출품자 전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한국발명진흥회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에서 우리나라는 11점의 발명품을 출품하여 금상 7, 은상 4, 특별상 2개 등 13개의 상을 수상했으며, 이 가운데 (주)영국전자의 '360도 파노라마 촬영용 카메라장치 및 그 운영 방법'은 금상 외에 제네바 주재 러시아 대표부 대사상을, 현대전자구들(주)의 '축열식 접구들 및 그 난방 방법과 에너지 저장방법'은 금상과 대북시장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 '제32회 제네바 국제발명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박광용 교사의 '자전거용 승마형 안장'인 '새들업(saddlup)'. 고정되어 있던 자전거 안장을 움직이게 하는 색다른 착안을 통해 자전거 중심축에 있는 안장을 앞뒤로, 또 상하로 미끄러지도록 만들어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엉덩이가 아프지 않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했다.

특히 금상을 수상한 경기도 군포 용호고등학교 박광용 교사의 '자전거용 승마형 안장'은 현지 언론의 치열한 보도 경쟁이 벌어질 정도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 교사의 작품은 지금까지 고정되어 있던 자전거 안장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엉덩이에 대한 압박감을 줄이고 승마 운동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유럽에서는 자전거 이용 인구가 많아 특히 박 교사의 작품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인 것.

이번 제32회 제네바 국제발명전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헝가리, 대만, 한국, 스위스 등 40개국 1천여점의 발명품이 출품되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1982년 제10회 대회부터 금년까지 모두 3백90점의 발명품을 출품하여 금상 94점, 은상 1백58점, 동상 86점 등 모두 3백40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우리나라 발명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입증하고 있다.

특허청, APEC 지식재산권전문가회의 의장국 역할 수행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지난달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동안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18차 APEC 지재권 전문가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다.

APEC 지재권전문가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1996년 설립된 APEC 산하기구로, 미국, 일본, 호주 등 역내 21개국 지재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APEC 기구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기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APEC 지재권전문가회의에서의 의장 수행은 지재권분야 우리 정부 총괄부서인 특허청이 심혈을 기울여온 지식재산행정의 세계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

로, 향후 지재권분야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의장국 역할 수행은 참여정부 최대의 외교행사의 하나인 2005년 APEC 정상회의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특허청 장준호 서기관은 공학박사 출신으로 지재권 정보화사업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참여정부에서 추진 중인 이공계 전문 인력의 공직진출 확대정책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한국관광진흥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국내 우수기업 중에서 최고의 품질과 제품성이 인정되는 오션의 최고급인생부어되는 인증제도입니다.

숯의 신비 = Carbona 카보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무턱대고 굽지마십시오!

카보나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발생되므로 건강에 좋습니다
 카보나는, 연기가 없고 냄새를 제거하므로 공기를 정화시킵니다
 카보나는, 고기맛을 좋게하고 사용후 불판을 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여과작용 · 탈취작용 · 습도조절작용 · 해독작용 · 정화작용 ·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발생 · 혈액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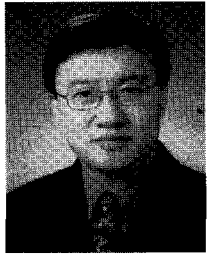
카보나는 천연 참숯을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www.isdigital.co.kr

ISDigital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29-8호
 TEL.(02)567-8080 FAX.(02)539-4600

카보나는 Charcoal(숯)+carbon(탄소)+나(我)의 합성어로
 숯을 태운다. 즉, 탄소의 결정체인 '숯에 있는 수많은 효능이
 사용하는 고객과 한몫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장에 전상우 심판장 승진 발령



전상우 신임 특허심판원장

정부는 지난달 6일 특허청의 1급(관리관) 직위인 특허심판원장에 전상우(51세, 행시 18회) 특허심판원 심판장을 승진 발령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특허법원과 함께 '98년 3월 1일 특허청장 소속하에 설립된 독립행정 심판기관으로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출원의 거절, 등록무효, 정정, 권리범위확인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여기에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1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신임 특허심판원장은 산업자원부에서 산업정책과 산업기술정책에 관한 기획 업무를 주로 맡아 온 정통 산업자원 관료로서 특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한

바 있어 행정과 기술을 모두 겸비하고 있다. 행시 18회로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 반도체전기과장, 산업기술정책과장을 거쳐 특허청 기획관리관, 국제특허연수부장, 특허심판원 심판장을 역임하였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행정고시(행시18회)에 합격한 후 미국 피츠버그 공대를 거쳐 최근에는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특허청구범의 해석에 관한 연구'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신임 전상우 원장은 현재 특허 심판처리기간이 14개월 정도 소요되는 등 장기화 되고 있어 특허전문 심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허 심판처리기간을 금년 연말까지 12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고, 앞으로 심판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하여 2007년까지 심판처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BM 특허 출원, 우선심사 신청비율 크게 증가

BM 특허 출원건수 중에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비율이 2000년 2.4%에서 2003년 5.5%로 꾸준히 증가한데 이어, 금년 1/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8배 증가한 1백27건이 우선심사 신청되어 전체 BM 특허 출원의 10.6%를 차지할 정도로 우선심사 신청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BM특허 부문의 우선심사 신청 비율은 특허출원 전체에서 우선심사 신청비율이 1.6%인 점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는 BM 특허와 관련된 인터넷 기업들이 대부분 신생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우선심사 신청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영업방법은 제3자의 모방이 쉽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조기 권리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3년 BM 부문의 우선심사 신청 이유를 살펴보면 전자거래와 관련된 발명(36.4%), 벤처기업의 발명(32.2%), 발

명의 자기 실시 또는 실시준비(23.7%) 등의 순이었는데, 특허 발명의 자기실시 또는 실시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8.4%에서 2003년 23.7%로 증가하여 BM 특허의 사업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심사를 신청한 특허 출원은 선행기술조사를 거쳐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통상 2, 3개월 이내에 특허등록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인 특허심사의 심사대기기간인 22.1개월보다 심사기간이 크게 단축되기 때문에 조기권리화가 필요한 기업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벤처기업 증명서, 자기실시를 증명하기 위한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우선심사 신청이 각하되거나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선심사 신청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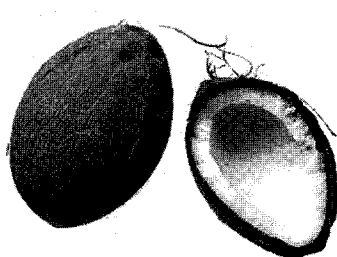
책 속의 이야기 ⑩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를 찾은 여인

'필리핀 군도는 귀중한 자연자원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런 자원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여 후진국으로 그리고 식량부족 국가로 전락하였다.'

과학자며 연구가, 발명가인 올림피아 곤잘레스가 주장하는 의견이다. 그녀는 몇 년 동안 필리핀의 풍부한 다양한 농업자원들로부터 최대의 이용 가능성을 추출해내는 방법을 모색했다. '74년부터 '82년까지 그녀가 받은 15개의 상이 인정해주듯이 1985년에 그녀는 가장 뛰어난 필리핀 여성발명가에게 주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 금메달을 받았다. 그 상은 식품공학분야에서 아이디어와 발명품 생산활동을 한 35년 동안의 공적에 대한 결과였다.

곤잘레스는 그때까지 50편 이상의 과학논문을 발표했으며 그중 일부는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과 캐나다에



서도 발표되었다. 그녀는 또한 특허가 난세가지 발명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것들 모두 발명가 콘테스트에서 상을 받은 것이었다. 그녀의

과학 업적과 발명품 중 일부는 매우 현실적으로 쓸모가 있으며 필리핀 산업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식품 공학자이기도 한 올림피아 곤잘레스는 연구 노력의 많은 부분을 새롭고 향상된 코코넛 제품을 개발 시키는 데 집중했다. 필리핀은 최대 코코넛 생산국이며 전세계 생산량의 40%를 점하고 있다. 코코넛 속의 영양가 높은 밀크액인 '가타'는 금방 상해버리는 단점이 있었고, 그녀는 이 밀크액을 보존시킬 수 있다면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수출 시장의 최대 수입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1970년 여러 동료연구원들의 도움으로 그녀는 이 맛있는 우유를 보존시켜 12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처리공정을 발명하였다. 이 코코넛 우유는 한 식품회사가 제조하여 '코코 마닐라'라는 이름으로 해외시장에 수출되었다. 또한 그녀는 코코넛으로 과일 카테일과 인스턴트 건조 식품인 '콩 커드'를 개발하기도 하였으며 통조림 공장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이용해 생선간장 발효를 촉진시키는 공정개발에도 성공하였다.

반짝이는 재능에서 발명품을 얻는 다른 발명가들과 달리 곤잘레스는 상질한 자세와 과학적 기술적 훈련을 통해 발명가가 되었다는 점이 색다르다.

4월 21일 '과학의 날' 유래를 찾아보자!

지난달 21일은 서른 일곱 번째로 맞는 '과학의 날'이다. 정부는 1967년 4월 21일 설립된 과학기술부의 1주년을 맞아 1968년 4월 21일부터 과학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 과학의 날 전통은 일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34년 4월 19일 '과학데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과학 행사를 시작했으니 꼭 70년 전이다. 과학데이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경성공전 요업과 1회 졸업생인 김용관(1897~1967)으로 조선총독부 장학생이었으며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신지식인이었다. 그는 조국을 근대화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1924년 경성공전 동기인 현득영, 박길용 등과 더불어 발명 학회를 설립했다.

김용관은 침체된 발명학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1932년부터 학계, 언론인, 문인 등 사회 저명인사들을 끌어들였다. 새롭게 개편된 발명학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잡지인 '과학조선'을 창간하면서 새로운 문화운동을 전개했다. 김용관은 과학조선에 게재한 '과학의 민주화'라는 글에서 '우리 조선 과학계도 각 전문 대가가 통속(대중)저술에 힘쓰고 통속 강연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통속 과학잡지가 있어야 그 전도가 점차 발전될 것'이라며 과학 대중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1934년 2월 28일 발명학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31명의 사회 저명인사들은 서울 중앙기독교청년회관(현 YMCA 회관)에 모였다. 그들은 과학 대중화를 위해선 과학데이와 같은 적극적인 행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찰스 다윈의 서거일인 4월 19일을 과학데일로 정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임종태 교수는 '다윈이 당시 위대한 과학자로 알려져 있기도 했지만 다윈의 학설(진화론)이 민족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시대정신에 부합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해인 1935년에는 과학지식보급회가 주관하여 '제2회 과학데이'가 전국적으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과학데이라는 깃발을 앞세운 54대의 자동차가 종로에서 안국동을 돌아 을지로를 행진했다. 군악대는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던 김억과 작곡가 홍난파가 만든 '과학의 노래'를 연주했다. 19일 밤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일제하 최고의 정치가였던 여운형이 '과학자에게 고하는 일언'이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과학데이는 얼마 가지 않아 막을 내려야 했다. 일제는 과학대중화운동을 독립운동으로 규정하고 1937년부터 과학데이 행사를 옥외에서 개최하는 것을 막았으며 1938년 김용관을 체포했다. 김용관이 옥에 갇히자 과학데이 운동을 주관하던 과학지식보급회도 해체됐다. 과학데이는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됐으며 우리 민족이 펼쳤던 과학 대중화운동의 뿌리라 할 수 있다.

하동만 특허청장 한·덴마크 특허청장 회담 개최

하동만 특허청장은 지난달 13일, 대전 특허청에서 에스퍼콩스타트(Jesper Kongstad) 덴마크 특허청장파 한·덴마크 특허청장 회담을 개최하여, 양국의 지적권 제도와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의 특허행정 정보화에 관한 협력, 심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 양청의 심사관 교류, 지적권 보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미미했던 양국간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이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의 지적권 제도 발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